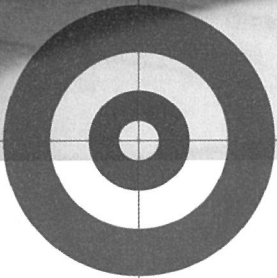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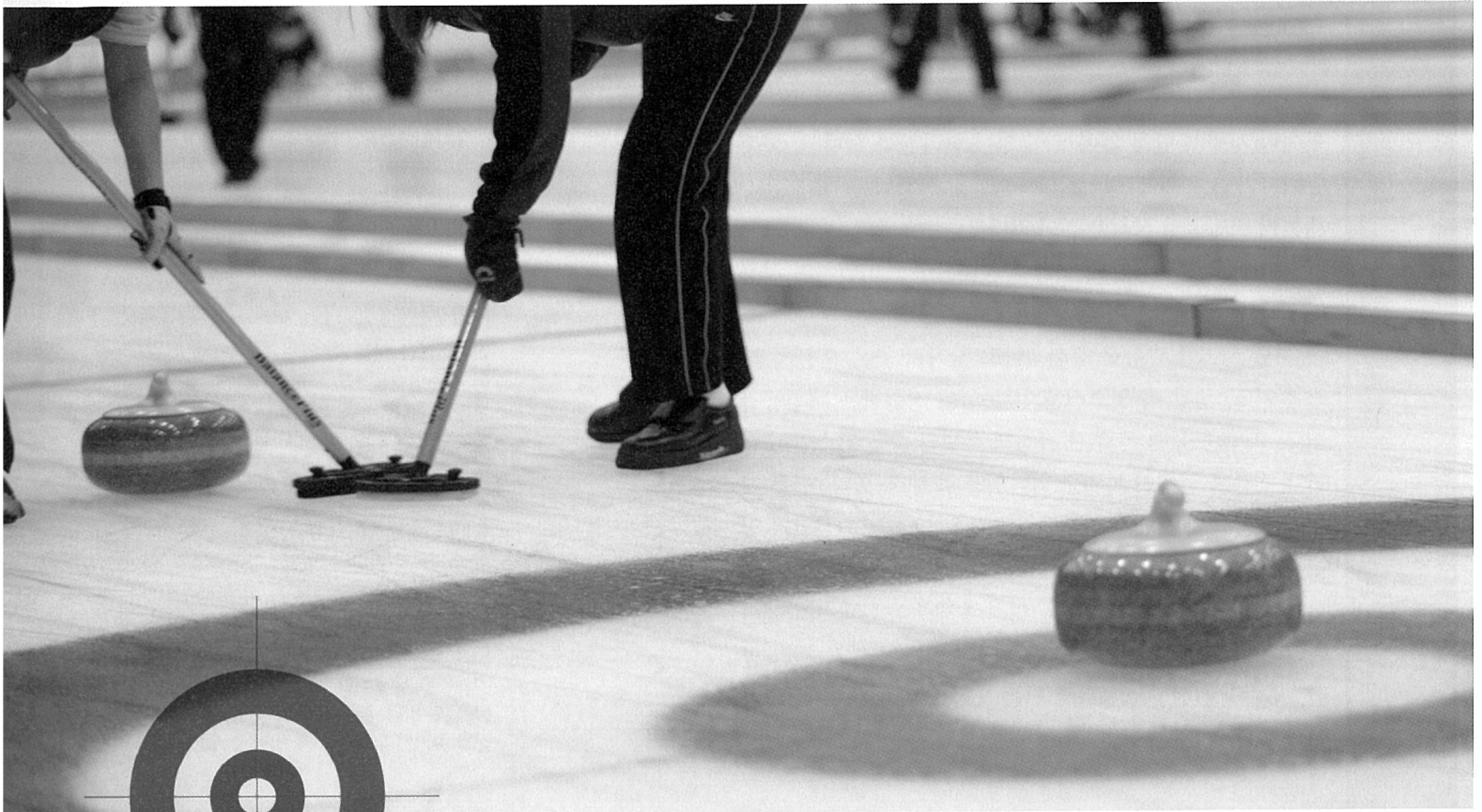


## 팀워크로 완성하는 빙판 위의 체스 컬링

컬링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게임성'이 강한 겨울 스포츠다. 상대 팀과 실력을 겨루다 보면 승부욕이 샘솟고 팀워크가 굳건해지는 효과가 있다.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치열한 전략 싸움이 벌어지는 컬링의 매력 속으로 빠져 보는 것은 어떨까.

글 최가영 기자 도움말 대한컬링경기연맹



세계인들의 겨울 축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는 물론, 소위 '비인기 종목'에서도 메달 사냥이 기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선전이 기대되는 다크호스가 바로 여자 컬링 대표팀(신미성, 김지선, 이슬비, 김은지, 엄민지)이다.

원래 컬링은 북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스포츠이지만, 2012년 캐나다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강호들을 잇달아 꺾고 4강

에 오르며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냈다. 컬링 불모지 한국에서 악조건을 견디고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게 평가된다. 이후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중국 상해에서 열린 2013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이탈리아 트렌티노에서 열린 2013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표적 중앙에 더 많은 스톤을 넣어라

컬링은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에서 둥글고 납작한 돌(스톤)을 투구해 표적(하우스) 중앙에 더 가까이 넣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다. 각 팀은 4명(후보 1명 외)의 선수로 이루어지는데, 선공 팀부터 코트 시작점에서 반대쪽의 하우스 타깃(표적)을 향해 스톤을 투구한다. 일반적으로 한 팀당 8개의 스톤을 상대팀과 한 개씩 번갈아 투구하며 (선수 1인당 1개씩 2회 투구) 양팀 16개의 스톤이 모두 투구되면 한 end가 끝난다. 최초 end는 토스로 선공과 후공을 결정하며 2end부터는 각 end에서 진 팀이 다음 end에서 후공을 맡아 유리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선수는 포지션인 Lead, Second, Third(vice-skip), Skip의 순서로 투구를 한다. 경기 진행 중에는 선수들의 투구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항상 스톤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스톤은 제거된다. 컬링의 한 게임은 10end로 구성되고 시간은 보통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 고도의 전략 싸움은 기본

동작이 과격하지 않은 데다, 스톤을 미끄러뜨리며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다 보면 유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관계자는 “아무리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이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30분만 기초자세를 연습하면 컬링 경기를 할 수 있다. 상대팀과 실력을 겨루다 보면 승부욕이 샘솟고 팀워크도 굳건해지는 효과가 있는 컬링은 흥미진진한 빙상 종합스포츠이다.”라며 컬링의 매력을 극찬했다. 더군다나 컬링은 ‘빙판 위의 체스’라 불릴 만큼 고도의 전략 싸움이 벌어지는 경기이므로 집중력과 사고력을 증진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스톤을 정확히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요충지를 선점해 우리 팀 스톤을 중심 가까이 놓기 위해 상대 팀 스톤을 밀어내기도 하고, 상대의 다음 투구를 예측해 진로를 막기도 하는 등 긴장감과 함께 다양한 전략이 추진된다. 팀 워크 또한 컬링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미끄러지며 움직이는 스톤의 속도와 방향을 브룸(빗자루 모양의 솔)으로 얼음을 닦으면서 조절하는 것은 컬링의 색다른 묘미다. ㉞



#### TIP

#### 컬링 경기 궁금하다면?

한국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흥미를 끌고 있는 컬링이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컬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현재 대한컬링협회는 홈페이지([curling.sports.or.kr](http://curling.sports.or.kr))를 통해 컬링의 규칙, 장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우리나라 컬링 국가대표팀의 경기 성적 및 사진 자료도 관람할 수 있다.

